

2025 세계감사인대회 감사 결과 (강원랜드, 가스기술공사)

1. 감사 개요

☐ 감사배경

- 국무조정실은 '25.8.6(수)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, 언론에서 외유성 출장으로 비판보도한 세계감사인대회 참석 공공기관의 감사를 요청

☐ 감사 기간 : '25. 8. 20.~9. 9.(기간중 7일간)

☐ 처분요구일 : '25. 12. 11.

2. 감사 결과

◆ (공무 국외여행 사전심사 생략) 「여비규정」에 따라 국외여행 심사대상임에도 2개 기관(강원랜드, 가스기술공사) 모두 심사 생략

- 심사 생략으로 인해 특별한 일정 없이 이틀 전(2025. 7. 12.(토) 10:30경) 현지에 도착 및 기관 국외여비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결과 초래

◆ (외유성 일정 참여) 사전보고 및 승인 없이 계획에 없던 비공식 개별일정 (나이아가라 폭포 관람) 수행(강원랜드 직원 3명, 가스기술공사 직원 1명)

* 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는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에 미참여하였으나 직원 1명이 참여

** 기관 예산으로 협회에 지급된 체재비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고도 관광 비용을 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해 약 201,120원 (1인당 CA\$ 50) "시정(환수)" 요구

◆ (국외여비(일비) 미정산) 강원랜드 참석자 3명 모두 주관 여행사에 체재비(일비 등) 납부하고도 기관으로부터 일비를 수령한 사실 확인

* 강원랜드 출장자 3명은 주관여행사(주식회사 이지트래블)에 체재비를 납부하고도 기관으로부터 일비를 총 252,360(84,120원 × 3명) 수령

◆ (공식일정 참여 미흡) 강원랜드 참석자 3명 모두 일부 공식 일정 미참여

* 가스기술공사 참석자는 2명 모두 공식 일정에 충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

◆ (기타 제도개선 및 처분요구) ❶ 「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국외

여행(출장) 결과보고서에 항공권 등 검증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정비 요구
(강원랜드, 가스기술공사)

② 「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」을 참조하여 국외여비 중 숙박비, 식비 등에 대해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사내규정 정비 필요(강원랜드, 가스기술공사)

③ 국내·외 교육훈련, 연수 등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출장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 필요(가스기술공사)

3. 조치 계획

- ☞ 국외여행 사전심사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2개 기관에 “기관 경고” 요구
- ☞ 기관허가 없이 관광 등 개별일정 수행하거나 공식 일정에 일부 미참석한 관련자 4명에 대해 “경고” 요구
- ☞ 외유성 관광 비용 및 일비 중복수령자 4명 총 453,480원 “시정(환수)” 요구
- ☞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여비 등 관리규정을 상위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하도록 “권고” 및 “통보”